

한국 공영방송의 서구중심주의 재조명 -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메타지리 분석 -

김이재* · 박민재**

Critical Reflections on Euro-centrism in the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 Meta-geographical Analysis of KBS "Special Report on the Current World" -

Eje Kim* · Minjae Park**

요약: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방송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프로그램이 다룬 국가와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에 내재한 메타지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았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 시기였음에도 공영방송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기존 4강 중심 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중심주의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미국이 중시하는 국제 분쟁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비서구 지역의 경우 자연재해, 분쟁, 정변 등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만 단발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전쟁과 정치 보도 비중이 급증하며 다루는 국가 및 주제의 다양성이 축소되었다. 한국 학계 및 교육계 전반에서 서구중심주의가 우세한 가운데 공영방송의 강대국 중심 보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기에 국제 이슈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설정이 시급해 보인다. 국제 이슈를 다루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국가 및 주제 선정에 있어 편향성을 완화시키고 공정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어: 공영방송, 서구중심주의, 메타지리, KBS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Abstract: KBS <Special report on the current World> which is used as educational materials in the schools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TV program to show the international issues. In spite of the New Southern polic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values India and Southeast Asia, only the big countries such as USA, China, Japan and Russia are highlighted. Eurocentrism to emphasize Ukraine, France, UK and Germany and American perspectives on the world issues have been fortified. Stereotypes on the non-western countries such as Southeast Asia, South Asia, Central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are intensified for they are reported on the negative issues including disasters, conflicts or political unrest. The Global South, marginalized groups and women's perspectives are less represented. Since the Ukrainian war broke out in 2022, the political issues are increased sharply to limit the diversity of the program in terms of country and theme. Eurocentrism could strengthen some prejudices on the Global South. To improve fairness and diversity of Korean TV program, immediate actions to overcome national stereotypes and diversify the themes are needed.

Key words: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Eurocentrism, Metageography, KBS <Special Report on the current World>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eje33@gmail.com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생(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owl134@snu.ac.kr

I. 문제 제기

2021년 여름 MBC는 도쿄 올림픽 개막식 중계 당시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 원전 참사’ 사진을, 아이티에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 자막을 쓰는 등 참가국 비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국제적 비난이 쇄도하였다. MBC의 개막식 중계방송 사고와 자막의 오류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간과해 온 지리 문맹 문제와 방송 및 언론 분야에서 누적되어 온 제3세계에 대한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MBC 사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 번 사과하고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사후 조치를 취하겠다”¹⁾고 발표했지만 세상을 보는 체계로서 메타지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MBC 개막식 중계방송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 “기본적인 규범 인식” 부분이 지리적 문해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방송 제작과 편성에 있어 언론으로서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는다(방송법 제4조 1항). 동시에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에 부합하는 보도를 할 책무(방송법 제69조)와 함께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룰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배진아, 2007). 한편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는 한국 사회의 맥락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이창현, 2008), 최근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균형을 잡고 정치적 양극화를 조율하는 공영방송의 책무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공영방송이 뉴스를 보도하는 프레임의 공정성을 살펴보거나(임준, 2018; 정세원·정호윤, 2023),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를 보도하는 프레임을 분석하는 연구(양은경, 2014; 표시영, 2020), 특정 프로그램에 내재된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박연진·이장근, 2023; 이설희·한희정, 2019; 정선주·최성보, 2015) 등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국제 뉴스에 있어 다양한 국가의 관점을 균형 있게 보도하거나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제 이슈를 바라보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최신 국제 이슈의 경우 대학생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주요한 정보를 얻는 상황에

서(김창환·김이재, 2022) 공영방송이 국제 뉴스 보도에 있어 각 지역과 이슈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강대국의 관점에서 국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심지어는 서구중심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는 고위도가 지나치게 확대된 세계지도의 사용이 방치되기도 한다(김이재, 2013). 특히 비서구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이설희·한희정, 2019; 정선주·최성보, 2015). 본 연구에서는 국제 뉴스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프레임을 공정성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지역 및 국가, 주체의 측면에서 메타지리적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리더들과 지식인 계층에서 많이 시청하는 국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메타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공영방송이 국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원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공영방송인 KBS의 대표적인 국제 시사 프로그램을 다양한 관점과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에 적합한 국제 이슈 보도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시사점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메타지리 분석틀

미디어 의존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분야일수록 방송 및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전염병이나 신기술이 바뀌는 미래 등 주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미디어 의존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사람들이 미디어와 같은 외부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을 때, 모든 상황을 미디어가 객관적으로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정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시청자와 대중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정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미디어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특정 이슈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지할 가능성도 있고,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서 메타지리적 인식 체계가 왜곡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공영방송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틀로서 메타지리를 점검하고,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를 균형있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이재(2021a, 2021b)는 한국 언론과 외교 정책에 있어 메타지리적 성찰 부족과 지도 표현의 오류를 비롯해 서구중심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현재 KBS 뉴스나 관련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세계 지도의 오류 양상을 비롯해 국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지도 전반에 대한 메타지리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통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도 표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고위도가 지나치게 확대된 기존 서구중심적 세계지도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동남아를 비롯한 저위도 지역을 지나치게 작게 보여주는 지도 표현의 오류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도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 표현에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지도 개선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방송용 지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 제작과 표현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김창환·김이재, 2022).

미디어를 통한 왜곡된 간접 접촉은 직접적인 접촉과 정에서 편견과 차별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Wölfer *et al.*, 2019). 이러한 태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메타지리에 내재되어, 거대한 서구 중심적 지식구조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된다(김이재, 2013). 메타지리란 단순히 물리적 위치정보로서의 공간을 넘어, 지식을 체계화하고 범주화하는 공간적 사고의 구조를 의미한다(Lewis and Wigen, 1997). 지도는 경도나 위도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볼 수도 있다(Beckford, 2008; Pratt, 1992). 메타지리가 개인의 경험, 정서, 권력, 이데올로기 등이 반영된 주관적 재현이라면(Klinghoffer, 2006), 특정한 장소나 이슈의 메타지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형성된 맥락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구조에 내재된 경험이나 정서, 이데올로기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숨은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 이 작업은 단순히 해당 구조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메타지리를 제시하고 더 나은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유용한 관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KBS 1TV에서 방영 중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메타지리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닐슨코리아 집계에 의하면 5~6%대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으며(Naver, n. d.), 지식인 계층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호하는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다. 또한 방송에 활용된 지도나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들은 KBS의 다른 프로그램들 및 중·고등학교의 사회(지리) 수업에서도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지닌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긴급한 외신을 번역해 신속하게 보도해야 하는 뉴스와는 달리 충분한 기획, 준비 기간을 갖고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진의 관점과 의지를 반영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할 여지가 있고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국 사회의 지도층과 지식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다루는 국가와 주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내재된 메타지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해외 국가들을 인식하고 있는 관점을 성찰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4년 간(2019년 8월~2022년 12월, 총 157회)의 방송에서 다루어진 국가와 주제를 분석하고, 이를 메타지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국가를 구분하는 지역 기준은 그림 1과 같다.

지역구분 방식은 한국 및 세계 지리교육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메타지리(Kim, 2007; Rowntree 등, 2017)에 기초해 인구, 경제 요소를 반영하였다. 러시아의 인구 대부분이 우랄 산맥 서부에 거주하고, 유럽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러시아 및 인접 국가들을 별도의 권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유럽(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과 중앙아시아(카프카스 산맥 일대 국가들)로 분류하는 한편,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으로 북미 국가들과 강하게 연결된 점을 반영하여 북미로 분류하였다. 더 나아가 카리브해 국가들과 가이아나, 수리남을 중앙 및 남아메리카로 분류하였으며, 남극 대륙은 오세아니아 지역과 통합하여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보도 국가 집계는 한 회차에서 보도되는 이슈들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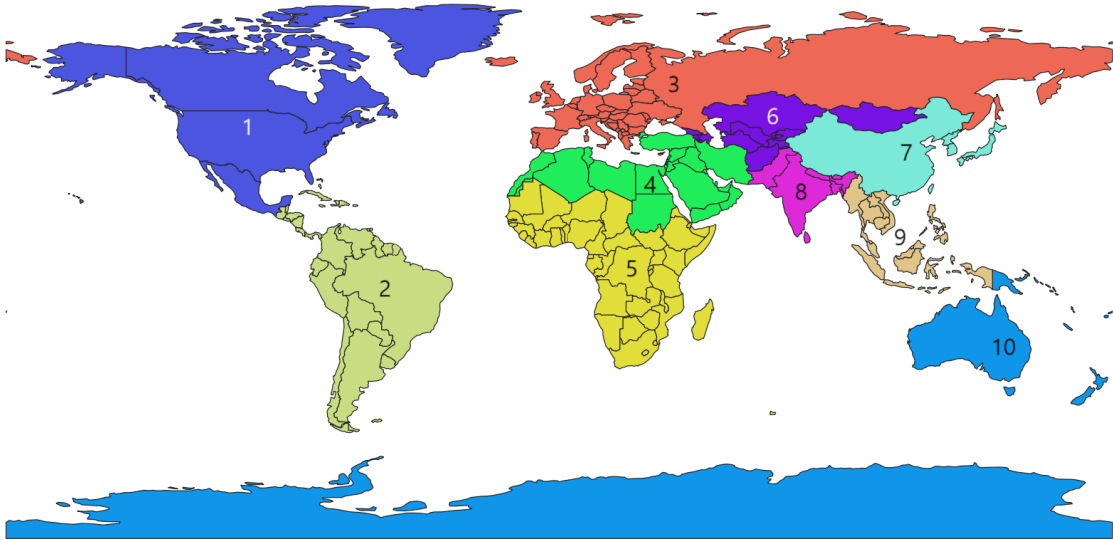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및 세계 지리교육계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지역구분방식 적용한 메타지리 체계
(번호 순서대로 북아메리카, 중앙 및 남아메리카,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고 번호는 임의로 지정)

준으로 실시하였으며, 한 이슈에서 복수의 국가들이 다루어졌을 때 보도된 국가들의 비중을 고려하여 집계하였다. 두 국가 중 현저하게 비중이 높은 국가가 있을 경우 그 국가를 단독으로 집계하였고, 두 국가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되었다면 모두 집계하였다. 또한 한 이슈에 등장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일 경우 ‘통합’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각 이슈의 주제는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지리, 사회로 나누었고, 그 핵심 내용은 표 1과 같다. 하지만 전 세계적 코로나19 범유행 관련 보도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특정 주제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슈의 경우에는 특집으로 따로 구분하였다.

III.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내용 분석

1. 국가 보도 회수의 양적 분석

4년간 방송된 <세계는 지금>에서 다뤄진 횟수를 국가별로 정리한 결과 1회 이상 보도된 국가는 총 89개국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국가는 미국으로 4년간 총 202회(19.9%) 보도되었으며, 연도 별 보도 비중은 각각 2019년 23%, 2020년 24%, 2021년 20%, 2022년 13.7%로 2022년을 제외한 연도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도된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누적 보도 횟수는 153회(15.1%)였으며 연도별 비중은 각각 2019년 18%, 2020년 16%, 2021년 13%, 2022년 14.4%

표 1. 보도 주제 분야별 분류 기준

분야	내용
정치/안보/외교	군사, 외교, 권력, 전쟁과 그 영향, 선거, 정당, 난민, 국가 간 갈등/분쇄
경제/산업	산업, IT, 기술 혁신, 경제위기, 노동/일자리, 부동산, 국제 무역
문화/예술	젠더, 언어, 예술, 패션, 트렌드, 스포츠, 미디어, 음식, 종교, 역사, 교육, 증오 또는 애국심 등의 감정적인 측면
지리/환경	영토 문제, 국경, 환경, 자연재해, 도시문제, 개발, 관광지(관광상품), 전염병 확산
사회/복지	국가 내에서의 차별, 법률을 둘러싼 논쟁, 보건 방역 정책, 빈부격차, 복지, 행정, 도시 내 분쇄, 범죄 및 처벌
기타(특집)	복합적인 주제를 동시에 다룸(예: 확진자 수, 정책, 백신 등 코로나 현황 전반 보도)

로 2019~2021년 2위, 2022년에는 비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시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한편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도시 봉쇄가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전체 보도 횟수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과점적 보도 비중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서 일본(75회) 및 우크라이나(42회), 프랑스(41회), 러시아(38회) 등의 유럽 국가들이 보도 횟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151회 이상 방송된 국가는 미국, 중국이 유일하며, 51회-150회 방송된 국가에는 EU(회원국 총합 109회)와 일

본(75회)이 포함된다. 이어서 16-50회 방송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인도, 7-15회 방송된 국가로는 미얀마, 타이, 이란, 타이완, 이스라엘, 멕시코, 대한민국, 엘살바도르, 호주, 튀르키예 등이 있으며 3-6회 방송된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1-2회 방송된 과테말라, 파나마 등의 국가들이 뒤를 잇는다.

위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보도 비중을 지역별로 묶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표 3).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전체의 2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유럽 지역의 보도 비중이 23.8%로 2번째로 높다. 이후 미국이 속한 북아메리카(21.9%), 중앙 및 남아메리카(7.5%), 중동 및 북아프리카(7.2%), 동남아시아

표 2.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누적 보도 횟수 상위 25개국

순위	국가명	지역구분	2019	2020	2021	2022	누적	비율
1	미국	북아메리카	33	70	59	40	202	20.0%
2	중국	동아시아	26	47	38	42	153	15.1%
3	일본	동아시아	11	24	18	22	75	7.3%
4	우크라이나	유럽	4	0	2	36	42	4.1%
4	프랑스	유럽	5	13	18	5	41	4.1%
6	러시아	유럽	3	5	5	25	38	3.8%
7	영국	유럽	3	2	14	9	28	2.8%
8	브라질	중앙 및 남아메리카	2	9	8	8	27	2.7%
9	독일	유럽	2	10	7	4	23	2.3%
10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2	0	15	3	20	2.0%
11	인도	남아시아	3	8	3	4	18	1.8%
12	이탈리아	유럽	1	9	3	3	16	1.6%
13	미얀마	동남아시아	0	0	12	2	14	1.4%
14	타이	동남아시아	2	6	3	2	13	1.3%
15	이란	중동 및 북아프리카	1	6	1	4	12	1.2%
16	타이완	동아시아	1	4	2	4	11	1.1%
17	이스라엘	중동 및 북아프리카	0	3	4	3	10	1.0%
18	멕시코	북아메리카	1	3	3	1	8	0.8%
19	대한민국	동아시아	1	3	2	1	7	0.7%
19	북한	동아시아	0	2	2	3	7	0.7%
19	아이티	중앙 및 남아메리카	1	0	5	1	7	0.7%
19	엘살바도르	중앙 및 남아메리카	0	3	1	3	7	0.7%
19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및 기타	2	3	1	1	7	0.7%
19	콜롬비아	중앙 및 남아메리카	0	2	4	1	7	0.7%
19	튀르키예	중동 및 북아프리카	1	2	0	4	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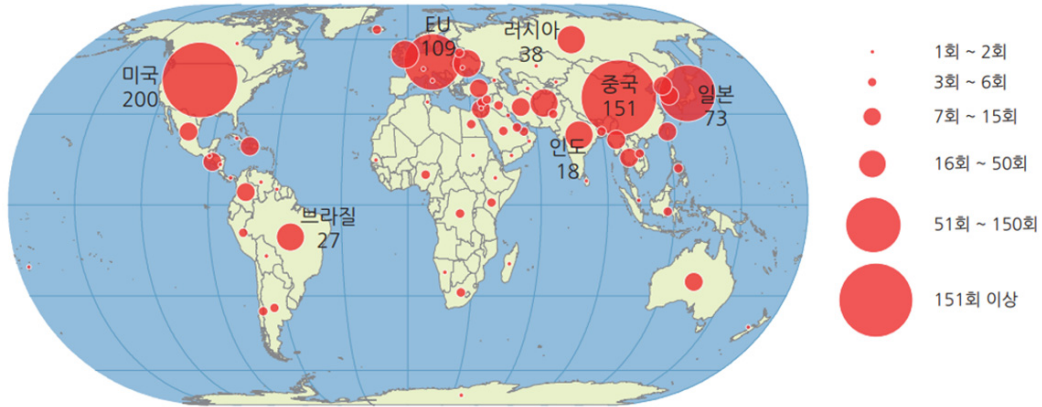


그림 2.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국가별 분포지도

표 3.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지역별 누적 보도 횟수 순위

순위	지역	소속 국가	합계	백분율
1	동아시아	중국(홍콩), 일본, 타이완, 대한민국, 북한	253	26.2%
2	유럽	우크라이나,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라루스, 폴란드, 그리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몰도바, 바티칸,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229	23.8%
3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211	21.9%
4	중앙 및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과테말라, 쿠바, 가이아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나마	72	7.5%
5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팔레스타인, 모로코, 예멘, 오만, 쿠웨이트, 튀니지	69	7.2%
6	동남아시아	미얀마,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43	4.5%
7	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27	2.8%
8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27	2.8%
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수단, 에티오피아	22	2.3%
10	오세아니아 및 기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통가, 남극	11	1.1%
	총합	1회 이상 보도 국가 89개국	964	100%

아(4.5%), 남아시아(2.8%), 중앙아시아(2.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3%), 오세아니아 및 기타(1.1%) 순으로 이어진다. 동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의 합계 비중이 전체의 약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들 사이에서도 중앙 및 남아메리카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이 14.7%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의 보도 비중을 모두 합한 13.5%보다 높아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보도 지역 불균등이 매우 심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도 비중이 높은 지역들 안에서도 특정 국가들

에 집중된 보도 경향이 발견되었다. 전체 211회 중 202회가 미국에 대한 보도였던 북아메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유럽 지역 안에서도 우크라이나(41회), 프랑스(41회), 러시아(38회), 영국(28회), 독일(23회), 이탈리아(16회) 6개국이 전체 보도 횟수 229회 중 188회를 차지하여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해당 연도에 총 36회 방송되어 미국(38회), 중국(40회)과 더불어 가장 많이 보도되는 등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3개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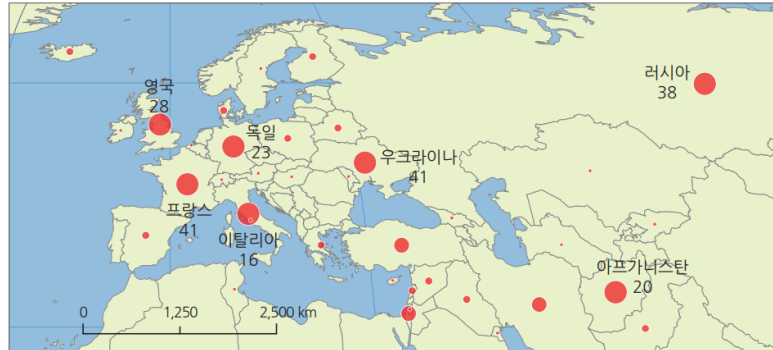


그림 3.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보도 분포 유럽 일대 확대도

보도하는 데 있어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시각을 소개하기보다는 단순히 미국과 유럽의 관점을 전달하는 데 치중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아시아권의 세부 지역들에서도 특정 국가들에 편중된 보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전체 보도 횟수 253회 중 228회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남아시아에선 전체 43회 중 미얀마와 태국이 각각 14회, 13회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도 총 27회 보도 중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에 각각 20회, 18회가 집중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미얀마와 타이에 편중된 보도 경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 속한 10개국 중 6개국만이 다뤄져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4개국은 아예 보도되지도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27회 보도되는데 그친 남아시아 지역과 더불어,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홀대는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인 2019~

2022년은 한국 외교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 인도 및 동남아와의 협력 관계를 미·일·중·러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앞세우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또한 새롭게 제안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서도 동남아시아는 핵심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외적인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동남아 홀대 현상과 서구 중심적인 내용 선정과 주제 선정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보도 주제에 따른 분석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4년간 다뤄진 이슈들을 정치, 경제, 지리(환경), 사회, 문화, 특집 분야 별로 나눠서 집계한 결과, 전쟁·외교·안보를 포함한 정

표 4.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주제 분야 연도별, 누적 보도 횟수 순위

주제 분야	2019	백분율	2020	백분율	2021	백분율	2022	백분율	누적	백분율
정치/안보/외교	47	33%	87	30%	86	30%	126	43%	346	34%
경제/산업	14	10%	32	11%	36	12%	45	15%	127	13%
문화/예술	24	17%	26	9%	22	8%	29	10%	101	10%
지리/환경	42	30%	50	17%	72	25%	52	18%	216	21%
사회/복지	14	10%	59	20%	53	18%	33	11%	159	16%
기타(특집)	0	0%	37	13%	22	8%	7	2%	66	7%
총합	141	100%	291	100%	291	100%	292	100%	1015	100%

치 분야가 총 34%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 분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3%, 30%, 30%, 43%로 모든 연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분야이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 43%로 급증하였다. 정치 분야에 이어 지리/환경(21%), 사회/복지(16%), 경제/산업(13%), 문화/예술(10%), 특집(7%) 분야가 뒤를 이었다.

1) 지역별 정치/안보/외교 분야 보도 비중 및 패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지역은 유럽으로, 전체 346회 중 98회 보도되어 28.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북아메리카 지역이 74회(21.4%)로 2위, 동아시아 지역이 72회(20.8%)로 3위에 자리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보도 비중이 높은 세 지역 중 유럽 지역이 1위를 차지한 유일한 분야로, 이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지역에선 중동 및 북아프리카 31회(9.0%), 중앙 및 남아메리카 21회(6.1%), 중앙아시아 20회(5.8%), 동남아시아 18회(5.2%),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각각 5회(1.4%)씩 보도되었으며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이외 지역은 보도 비중도 총 27.6%가량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들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테러, 이슬람 정권 반대 시위로 인한 혼란이 주요 보도 주제들이었으며,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

적 혼란, 반정부시위 관련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각각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사태와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대한 보도가 전체 20회 중 15회, 전체 18회 중 14회를 차지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아시아 지역에선 인도의 국경 갈등 및 난민 문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반정부시위가 보도되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정파 갈등, 수단 쿠데타와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이 다루어졌다.

2) 지역별 지리/환경 분야 보도 비중 및 패턴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 있게 다뤄진 지리/환경 분야에선 동아시아 지역이 총 57회(26.4%)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유럽과 북미가 각각 48회(22.2%), 39회(18.1%)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20회(9.3%) 보도된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과 14회(6.5%) 보도된 동남아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지리/환경 분야가 그나마 가장 많이 보도된 주제인 셈이다. 이어서 남아시아(8회, 3.7%),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7회, 3.2%), 오세아니아 및 기타(6회, 2.8%), 중앙아시아(4회, 1.9%)의 순서로 이어진다.

정치/안보/외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지역의 비중이 작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전체의 66.7%가량을 차지하여 불균등 현상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 경향 또한 그대로였다. 먼저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은 주로 아마존의 산불이나 벨로 몬테 댐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같은 환경 문제, 난민,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보도들이 주를 이루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 화산 폭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업 감소 이슈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보도들은 카슈미르 영토 분쟁, 기후변화나 스모그 등의 환경 문제, 2022년 파키스탄 대홍수를 다루고 있었으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선 각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 이라크의 폭염과 난민촌 강제 철거, 화산 폭발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기의 지속과 메뚜기 폐의 창궐이 주로 다루어졌다. 오세아니아

표 5.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정치 분야 지역별 보도 비중(통합으로 분류된 3건 제외)

지역	보도 횟수	백분율
유럽	98	28.3%
북아메리카	74	21.4%
동아시아	72	20.8%
중동 및 북아프리카	31	9.0%
중앙 및 남아메리카	21	6.1%
중앙아시아	20	5.8%
동남아시아	18	5.2%
남아시아	5	1.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	1.4%
오세아니아 및 기타	0	0%

표 6.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지리 분야 지역별 보도 비중(통합으로 분류된 6건 제외)

지역	보도 횟수	백분율
동아시아	57	26.4%
유럽	48	22.2%
북아메리카	39	18.1%
중앙 및 남아메리카	20	9.3%
동남아시아	14	6.5%
남아시아	8	3.7%
중동 및 북아프리카	7	3.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	3.2%
오세아니아 및 기타	6	2.8%
중앙아시아	4	1.9%

및 기타 지역에선 호주의 산불과 통가의 화산 폭발, 남극의 이상고온 현상이 주요 이슈로 보도되었다.

3) 지역별 경제 분야 보도 비중 및 패턴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지역은 동아시아로, 총 42회 보도되어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아메리카가 29회(22.8%)로 2위, 유럽이 21회(16.5%) 보도되어 3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10회(7.9%),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이 8회(6.3%) 보도되었으며 남아시아 2회(1.6%),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각각 1회(0.8%)씩 보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아예 한번도 다루지지 않았다.

경제 분야의 경우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지역의 비중 합계가 72.4%에 달하는 점과 더불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이 나머지 27.6% 중 14.2%를 차지하며 편중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였다. 상위 세 지역 이외 지역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 경향 또한 반복해서 나타났는데,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레바논과 튀르키예의 경제위기가 주로 다루어지는 가운데 중앙 및 남아메리카 관련 보도들은 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관한 내용이었다.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갖는 경제적 밀접성이 상당함에도 보도에서 소외되었으며, 그나마 보도된 내용들도 방글라데시의 양과 대란과 인도의 코로나로 인한 대량 실직 및 식

량난, 필리핀의 교통수단 중 하나인 지프니 폐지 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로 부정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4) 지역별 사회/복지 분야 보도 비중 및 패턴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북아메리카 지역이 49회(30.8%) 보도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아시아와 유럽은 각각 33회(20.8%)와 32회(20.1%)로 그 뒤를 이었다. 상위 세 지역 이외에는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이 17회(10.7%) 보도되어 다른 지역들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어서 남아시아(7회, 4.4%),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회, 3.1%), 동남아시아(3회, 1.9%), 중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및 기타(2회, 1.3%)의 순위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는 상위 세 지역의 총 비중이 전체의 71.4%로 경제 분야 못지않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도 제3세계 지역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계속되었다.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이 일대의 갭단, 강도와 공권력 사이의 무력 충돌에 관한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남아시아 지역의 보도 내용은 크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아동 노동, 불가촉천민 성폭력에 관련된 이슈들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해당 지역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다루는 보도들이 주를 이뤘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보도들은 나이지리아 아기 인신매매 및 자선행사 압사 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폭동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선 싱가포르, 베트남의 방역 정책과 타이의 신종

표 7.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사회 분야 지역별 보도 비중(통합으로 분류된 4건 제외)

지역	보도 횟수	백분율
북아메리카	49	30.8%
동아시아	33	20.8%
유럽	32	20.1%
중앙 및 남아메리카	17	10.7%
남아시아	7	4.4%
중동 및 북아프리카	5	3.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	3.1%
동남아시아	3	1.9%
중앙아시아	2	1.3%
오세아니아 및 기타	2	1.3%

마약 문제가 보도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선 키르기스스탄의 납치 결혼 문제와 아프가니스탄의 조혼 문제가 다뤄졌고,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에선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코로나19 확산과 범죄집단 검거 소식이 보도되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보도된 이슈들을 분야와 지역별로 묶어서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관련 이슈들에 보도가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비중이 43%까지 올라 경제나 환경, 사회, 문화 등 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서구,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보도가 집중된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미군 철수로 주목받았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재집권이나 미국이 핵심축을 담당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유럽 일대의 안보가 직결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미국과 서구의 관심 지역이 한국 언론과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과 비중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제3세계 지역에 대한 부정적 보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박선미·우선영(2009)과 김아영(2010)이 지적하듯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이미 중앙 및 남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늘 경제난과 각종 분쟁에 허덕이고 있는 듯이 서술하는 사회 및 세계지리

교과서를 접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의 지금과 같은 혼란, 갈등 중심의 보도 방식은 이러한 교과서들로부터 형성된 선입견을 더욱 강화할 위험이 있다.

IV. 메타지리 분석과 비판적 성찰

1. 국가 편중(서구중심적 메타지리)에 대한 문제 제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나타나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보도 경향의 배경에는 서구중심주의적 지리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관은 세계 국가들을 제1, 2, 3세계로 나누는 지역구분으로 대표된다. 이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진영을 구분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인구학자 알프레드 소비가 1952년 개발한 표현으로, 냉전 시기 개발주의와 서구의 헤게모니에 근간을 두고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이다(Lewis and Wigen, 1997).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세계는 북아메리카 및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구분된다. 제2세계는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며, 제3세계는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는 국가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가 포함된다.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경제 규모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메타지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서 ‘선진국’은 개발주의적 관점에 기인하며 서구 유럽의 발전 모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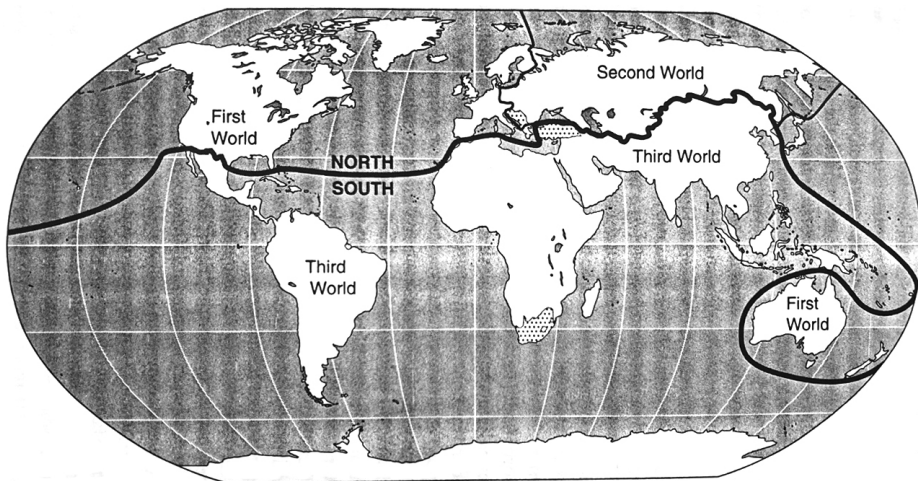


그림 4. 제1,2,3세계에 대한 구분(Lewis and Wigen, 1997)

이상화하는 사상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Kim, 2007; Lewis and Wigen, 1997). Said(2007) 또한 탈식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서구 유럽에서 강조하는 이성과 비이성,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적 구분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이것이 식민지 건설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였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약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46억 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기에, 아시아 지역을 좀 더 세분한 메타지리 체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또한 거대한 대륙일 뿐만 아니라 약 13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기에 좀 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면 약 7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유럽은 독립적인 대륙으로 보기 어렵고, 우리에게 유럽의 경제적 중요성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국제 이슈 보도에 있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2세기가 해체되고 1세기와 3세기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1세기와 3세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같은 추상적인 메타지리 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보인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구를 나머지 세계 나라들이 지향해야 할 모델이나 ‘표준’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

서구중심주의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비단 방송 편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정지을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메타지리의 왜곡이다. 전중환(2014)은 세계지리 과목에서 기존의 지배적 구분 방식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은 학생들이 인간과 문화, 자연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강성호(2010)는 서양사에서의 유럽중심주의

적 시각은 현실적인 세계사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는 왜곡된 관점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방송이나 인터넷, 교과서, 책 등에 내재된 서구중심주의는 편향되고 왜곡된 메타지리 체계를 형성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담론을 통해 표준화되고 공유된다(Kim, 2007; 김이재, 2013). 한국 사회에 지리문맹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담론의 무비판적인 재현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특정 국가 편중 현상은 서구중심주의적 메타지리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KBS와 더불어 공영방송인 MBC가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30여개 국가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은 어쩌면 예정된 참사일 수도 있는 것이다.²⁾

2. 국가 및 주제 선정에 있어 다양성 결여

나아가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주제를 선정할 때 공영방송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의 5가지 기본적 책무, 즉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중에서 국제 이슈 보도에서 다양성, 균형성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주제 선정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가 다양하게 다루어지기 보다는 정치·안보 이슈에 치중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수도 있겠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룬 국가가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역보다는 미국에서 관심을 두는 지역의 전쟁을 서구의 관점에서 보도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한국

표 8. 대륙별 면적, 인구 및 인구 밀도

지역	면적(천 km ²)	인구(천 명)	인구 밀도(명/km ²)
세계 총합	136,162	7,794,799	59.9
아시아	31,915	4,641,055	149.6
유럽	23,049	747,636	33.8
아프리카	30,311	1,340,598	45.2
북아메리카	21,776	368,870	19.8
남아메리카	17,832	430,760	25.0
오세아니아	8,564	42,678	5.0

(출처, 『유엔 통계 포켓북』, 2020)*지학사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부도 p.96

사회에 필요한 지정학적 이슈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 언론도 국제 이슈를 다룰 때 서구의 관점을 거의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관점과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국제 정세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다루는 주제도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언론의 관점에서 선정하고, 사례 지역에 대한 설명도 서구의 언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브라질의 아마존 삼림 파괴만 다루고, 마약 카르텔이나 이민 문제는 주로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등 중남미 일대를 사례로 보도하는 식이다. 공영방송에서 서구중심적 메타지리 체계에 기초해 서구의 관점을 그대로 인용하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를 거의 다루지 않거나 자연 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에만 간간히 다루는 보도 행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서구중심적 내용 선정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계속 방치되는 답답한 상황이지만(김이재, 2013; 김이재 2021b), 공영방송의 경우 제작진의 각성에 의해 프로그램 제작에 바로 새로운 관점이 반영되고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

다. 한편 지난 4년간 젠더의 측면을 다룬 경우가 12편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최근 방송의 흐름에 비춰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세계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여성의 관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현지 여성들의 실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슈뿐 아니라 국제 이슈를 보도할 때에도 젠더·인종·계급의 측면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특히 제3세계 지역의 정형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

3. 한국 현실과 유리된 국가와 주제 선정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국가 및 주제 선정에 있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고려보다는 서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듯하다. 실제로 제3세계 내에서도 우리와 가깝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환경, 사회, 문화 이슈가 많은 동남아시아보다는 서구 언론의 관심이 높은 중남미나 중동을 오히려 더 많이 다루는 실정이다.

아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 및 수입 거래국들이며, 특히 수출의 경우 2022년 수출액 기준 상위 15개국에서 대(對) 동남아시아 수출 총액이 123,604,524(천 달러)로 중국에 이은 전체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2022년 기준 수출, 수입 상위 15개국

수출 상위 15개국 (2022)		수입 상위 15개국 (2022)	
국가	금액(천 달러)	국가	금액(천 달러)
중국	155,602,878	중국	155,602,878
미국	109,525,836	미국	109,525,836
베트남	60,961,615	일본	60,961,615
일본	30,602,560	호주	30,602,560
홍콩	27,650,766	사우디아라비아	27,650,766
대만	26,194,030	대만	26,194,030
싱가포르	20,204,442	베트남	20,204,442
인도	18,833,844	독일	18,833,844
호주	18,749,095	카타르	18,749,095
멕시코	12,642,176	인도네시아	12,642,176
필리핀	12,279,256	아랍에미리트 연합	12,279,256
말레이시아	11,465,783	말레이시아	11,465,783
인도네시아	10,129,938	러시아 연방	10,129,938
독일	10,061,611	쿠웨이트	10,061,611
태국	8,563,490	싱가포르	8,563,490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인적 교류나 방문객 측면에서 볼 때 제3세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다. 국적별 한국 방문 외국인 수 상위 15개국 중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문객 수를 합산하면 총 163,354명으로 일본과 중국에 이은 3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베트남·싱가포르·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뿌리깊은 동남아 홀대 현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서 공영방송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활발한 인적 교류는 단순 방문객 수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인구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기준 결혼이민자 국적 상위 5개국 중 3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였으며, 상위 13개국 중 동남아시아 국적 이민자 수의 합계는 총 64,611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결혼이민자 수 1위이다. 이렇듯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깊은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2019~2022년 기간 동안 전체 보도 중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4.5%에 불과했다.

최근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 늘고 한국 사

회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나 여행·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를 다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를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해 관광지 중심으로 다룰 경우 오히려 지역의 정형성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해가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방송은 사회 통합과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먼저 한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을 고려해 국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와 주제를 선정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일례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성이 높은 나라,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비중을 높이고, 특히 경제 분야 주제를 다룰 때 실제로 경제적으로 관계가 많은 나라 중심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현재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은 경제 분야 주제조차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중요한 나라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편향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제에 맞는 적절한 국가를 우리의 관점에서 선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출, 수입 국가 순위와 실제 무역액 수치에 근거해 이들 나라에 대한 경제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표 10. 2021년 결혼이민자 국적 상위 13개국

결혼이민자 국적 상위 13개국 (2021)			
국가	계	남성	여성
중국	59,770	13,951	45,819
베트남	41,447	3,560	37,887
일본	15,074	1,272	13,802
필리핀	12,041	528	11,513
태국	6,558	122	6,436
캄보디아	4,565	546	4,019
미국	4,538	3,200	1,338
우즈베키스탄	2,709	182	2,527
몽골	2,502	191	2,311
러시아	2,041	145	1,896
타이완	1,596	142	1,454
캐나다	1,426	1,154	272
영국	1,200	1,032	168

(출처: 법무부, 2021 출입국 통계연보)

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23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이주민인 ‘다인종·다민족 국가’로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에 많이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국가를 선정하고, 다양한 주제를 기획함으로써, 다문화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과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 공영방송 프로그램 KBS <특파원 보고 세계>에서 방영된 내용을 대상 국가 및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서구중심적 메타지리가 우세하였다.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서구중심적 시각이 우세하고 한국 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국가와 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주의 관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서구의 관점을 비판적 성찰의 과정 없이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깊은 서구중심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크다. 특히 제3세계 및 비서구 지역 국가의 경우 자연재해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주로 보도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제3세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책무가 국내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점, 균형있는 보도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언론과 방송에서 서구의 관점을 비판적 성찰의 과정 없이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서구중심주의를 강화하고 비서구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특정 이슈를 다룰 때 서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남아 등의 제3세계 비중을 늘리고 세계 인구의 90%에 달하는 비서구 지역의 관점을 일부라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서구 강대국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대로 전하기 보다는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에 기초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 시사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기 위한 제작진의 각성과 의식적인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나아가 세계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여성의 관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젠더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메타지리 분석 틀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국제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해 봄으로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지리 관련 논의를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다면 한국 학계 및 교육계에서 뿌리깊은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좀 더 균형잡힌 메타지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

- 1) MBC 사장은 자체 심의 규정 강화와 윤리위원회 구성, 콘텐츠 적정성 심사 시스템 도입 등의 조치와 함께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인류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성평등 인식을 중요시하는 제작 규범이 체화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62109).
- 2) 아이티를 소개할 때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개 속’이라는 표현 사용했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소개했다. CNN은 한국을 소개할 때 세월호 참사를 보조자료로 활용했으면 어떤 기분이겠냐라는 한 트윗을 인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BBC는 MBC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도 비슷한 사진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번 사태가 재발한 점을 비판했다(<https://www.cnn.com/2021/07/25/asia/south-korea-broadcaster-blunder-olympics-intl>) (Tokyo 2020: S Korea TV sorry for using pizza to depict Italy - BBC News).

참고문헌

- 강성호, 2010, “유럽중심주의 세계사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을 넘어”, 역사학연구, 39, 216-244.
- 관세청, n.d., 2022년 수출입무역통계.
- 김아영, 2010, “세계지리 교과서의 탈식민주의적 분석”, 교육과정연구, 28(3), 167-191.
- 김이재, 2013, “어린이 세계그림지도책의 메타지리적 특성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2), 1-16.
- _____, 2021a,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 서울: 쌤앤파커스.
- _____, 2021b,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동남아 홀대 현상과 원인 분석 -국가주도 사회과 교육과정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33-52.
- 김창환·김이재, 2022, “외교정책의 기초로서 지리적 문해력 재조명: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지 오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창환·배선헌, 2014, “수능 세계지리 문항에 제시된 국가의 공간 분포 분석”, 한국사지리학회지, 24(4), 193-202.
- 박선미·우선영, 2009,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제7차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중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8(4), 19-34.
- 박연진·이장근, 2023, “이주민 재현 프로그램 출연자의 특성과 갈등요소 구성에 관한 연구: <이웃집 찰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2), 174-196.
- 배진아, 2007,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성”, 방송통신연구, 여름호, 74-101.
- 법무부, 2022, 2021 출입국 통계연보.
- 양은경, 2014, “글로벌 위험 보도와 국가주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KBS< 뉴스 9> 의 담론분석”, 한국방송학보, 28(1), 206-244.
- 이설희·한희정, 2019, “외국인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민족/국가 재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5, 2019, 163-193.
- 이창현, 2008,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방송통신연구, 45-68.
- 임준, 2018, “한국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 경향 연구: <MBC>, <KBS>, <SBS> 저녁뉴스와 <YTN> 뉴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7(1), 321-354.
- 전중환, 2014, “세계지리 과목의 권역 구분 방식과 내용 체계의 개선 방안”, 글로벌교육연구, 6(2), 3-36.
- 정선주·최성보, 2015, “TV 프로그램에 재현되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특성: EBS <다문화교류열전>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8(2), 97-122.
- 정세원·정호운, 2023, “한국 언론이 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국과 국제사회, 7(3), 443-464.
- 표시영, 2020, “한국 공영방송의 ‘코로나19’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KBS< 뉴스 9> 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112-122.
- Rowntree, L., Lewis, M., Price, M., Wyckoff, W. 저, 안재섭·김희순·신정엽·이승철·이영아·정희선·조창현 역, 2017, 세계지리: 세계화와 다양성, 시그마프레스 (Rowntree, L., Lewis, M., Price, M., and Wyckoff, W., 2015, *Globalization and Diversity: Geography of a Changing World*, Pearson, London)
- Said, E.W. 저, 박홍규 역, 2007,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Said, E. W., 1978, *Orientalism*, Pantheon Books, New York)
- Naver,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청률.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_top&where=nexearch](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_top&where=nexearch&query=%ED%8A%B9%ED%8C%8C%EC%9B%90+%EB%B3%B4%EA%B3%A0+%EC%84%B8%EA%B3%84%EB%8A%94+%EC%A7%80%EA%B8%88+%EC%8B%9C%EC%B2%AD%EB%A5%A0&query=%EC%84%B8%EA%B3%84%EB%8A%94+%EC%A7%80%EA%B8%88+%EC%8B%9C%EC%B2%AD%EC%9C%A8&qt=IRPs1wqo1SCssZUrdd8sssst7V-284467)
- Beckford, S. M., 2008, A Geography of the Mind: Black Canadian Women Writers as Cartographers of the Canadian Geographic Imagination, *Journal of Black Studies*, 38(3), 461-483.
- Kim, H., 2007, Does Geography ‘really’ contribute to ESD?: Critical reflections on meta-geographical frameworks in World Geography, *Geographischdidaktische Forschungen*, 42, 66-72.
- Kim, E., 2010, “Revisiting Southeast Asia in Japanese and Korean geography curriculum and textbooks”, Understanding the changing space, place and cultures of Asia, SEAGA Hanoi Biannual Conference.
- Klinghoffer, A. J., 2006, *The Power of Projection: How Maps reflect Global Politics and History*, Praeger Publishers, Santa Barbara.
- Lewis, M. W. and Wigen, K. E., 1997, *The Myth of Contin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Pratt, M. L., 1992,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edge, London.
- Wölfer, R., Christ, O., Schmid, K., Tausch, N., Buchallik, F. M., Vertovec, S., and Hewstone, M., 2019, Indirect contact predicts direct contact: Longitudinal evide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6(2), 277-295.

접 수 일 : 2023. 11. 06

수 정 일 : 2023. 11. 23

게재확정일 : 2023. 11. 24

교신: 김이재, 139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kimeje33@gmail.com, 031-470-6220)

Correspondence: Eje Kim, kimeje33@gmail.com